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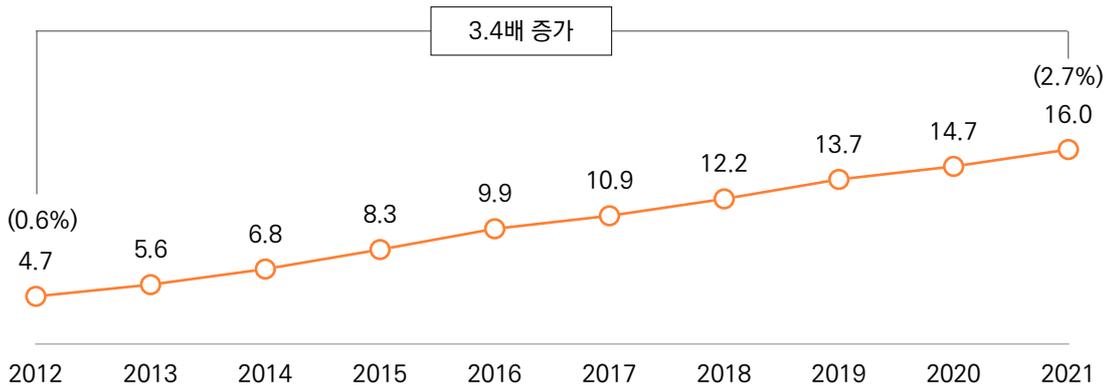


국내 다문화 학생 수, 9년 새 3.4배 증가

- ▶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'202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'에 따르면 2021년 국내 다문화 학생수는 16.0만 명으로 9년 전(2012년) 4.7만 명과 비교해서 3.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▶ 2021년 국내 전체 학생 수(596만 명) 대비 다문화 학생 수(16만 명) 비율은 약 2.7%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. 비율상으로는 작아 보이나 통계적으로 급증하는 추세(2012년 0.6%→2021년 2.7%)이기에 앞으로 다문화 학생 및 가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.

[그림] 연도별 다문화 학생 수(2012~2021)

(단위 : 만 명)



*자료 출처 : 교육부·한국교육개발원, '202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'(유·초·중등교육통계편), 2021.12.

**다문화 학생수 = 국제결혼가정 자녀(국내출생 자녀+중도입국 자녀)+외국인가정 자녀

*** ()안은 전체 학생수 대비 다문화학생 수 비율임

◎ 부모 출신국 : 베트남 1위, 중국 2위

- ▶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 학생 비율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, 2012년 28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일본과 7%였던 베트남이 2021년에는 상황이 뒤바뀌는 양상을 보였다.
- ▶ 2021년 베트남은 1위(32%)로 올라섰고, 일본(5%)은 중국(24%), 중국(조선족)(8%) 다음에 위치하며 그 비중이 급감하였다.
- ▶ 또한 중국의 경우, 2012년에는 중국과 조선족이 비슷한 비율이었는데, 2021년에는 조선족(8%)이 크게 줄고, 중국(24%)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.

[그림] 연도별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 학생 비율 (2012~2021) (단위 : %)



*자료 출처 : 교육부·한국교육개발원, '202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'(유·초·중등교육통계편), 2021.12.

** 연합뉴스, 2022.02.01. '다문화학생 16만명, 9년새 3배...초등 4.2% 베트남계 32%로 최다'

(<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0128157500530?section=search>)